

## 우리나라 면방직업의 발자취 - 06

### - 목화 전래로부터 8·15 해방까지 -

#### 6. 일제시대의 면방직업

##### 6.3 도시의 전업적 직물업

합방이 되자 즉시 일제는 한국의 민족자분을 억눌러 자본주의적 대규모 공업발전을 저지하여 영구히 식민지적인 식량공급지로 묶어두고 일본공산품의 시장으로 확보하고 있으려는 의도에서 조선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면서도 일제는 조선조 말기에 서울 일원을 비롯하여 각지에 난립해 있는 영세 직조공장들은 가내공업에 불과하고 아직 기술수준도 보잘 것 없으며, 기계적 방적은 엄두도 못내어 직조에만 국한되고 있었으므로 본국 자본의 이해를 위협할 걱정이 없고 오히려 일본의 면사나 직기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는 영세농업을 적당히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농촌의 부업적 직물업의 지도육성과 함께 도시 직물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표 17> 1911~1923년 한·일 국적별 염직업공장 현황

(단위 : 원/인/마력)

연 도	국 별	공장수A	자본금B	직공C	원동력	B/A	C/A
1911	한국	9	67,816	286	10	7,535	30.2
	일본	3	11,000	87	-	3,667	25.7
1912	한국	13	140,120	410	15	10,001	30.2
	일본	2	10,000	45	-	5,000	18.5
1913	한국	11	121,010	274	10	11,001	24.9
	일본	3	15,800	47	-	5,267	15.7
1914	한국	19	124,010	446	5	6,527	23.5

	일본	5	53,820	80	-	10,764	16.0
1915	한국	27	144,790	453	-	5,364	16.8
	일본	9	57,200	253	-	6,356	28.1
1916	한국	46	190,580	836	6	4,143	18.2
	일본	14	106,800	623	-	7,629	44.5
1917	한국	68	221,390	1,222	9	3,256	18.0
	일본	15	99,750	2,087	4	6,650	139.1
1918	한국	70	361,253	1,181	17	5,161	16.9
	일본	7	22,500	272	9	3,214	38.9
1919	한국	51	476,573	1,022	8	9,345	20.0
	일본	5	336,799	412	66	67,360	82.4
1920	한국	24	276,022	402	15	11,501	16.8
	일본	5	32,088	188	3	6,416	37.6
1921	한국	21	355,422	327	15	16,925	15.6
	일본	7	75,000	120	10	10,714	17.1
1922	한국	36	945,250	581	30	26,257	16.1
	일본	8	128,500	117	27	16,063	14.6
1923	한국	37	1,006,000	774	60	27,189	20.9
	일본	4	59,000	77	80	14,750	19.2

[주] : 1911~1912년은 직공, 도제를 합하여 10인 이상 또는 원동력이 있는 공장수임. 1913년 이후는 직공, 도제를 합하여 제조시기에 있어 평균 5인 이상 사용공장, 원동력이 있는 공장 또는 1년 생산액 5,000원 이상의 공장수임. 다만 관설공장은 제외함

<표 17>의 조선총독부 통계를 보면 1911~1923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본 방직자본이 미미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투자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일본자본이 주로 조면업, 정미업 등에 투자되었으며, 방직업에는 1917년 부산에 조선방직이 설립되었을 뿐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규모를 보면 자본금 25,000원의 주식회사인 경성직유 등 1~2개 공자의 투자가 1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큰편이고, 나머지는 모두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공장들뿐이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의 영향을 받아 한국인에 의한 것으로는 1911년에 9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1915년에는 27개서, 1918년

에는 70개소로 급증하고 있으나 1차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전후의 불황으로 24개 공장으로 격감하고 있다.

<표 18> 1913년 서울지방의 직물업소 현황

업주 혹은 업체명	직공수	직 기(대)	생 산 품 목
경성직유(주)	95	냥유(직기 40, 요대편기 8, 단 임기 26, 족답기 3, 바텐기 1	냥유, 요대, 단임, 면직교직물
김덕창	40	족답기 8, 바텐기 6	면직물
이병현	20	바텐기 13	견주 및 교직
한창진	18	바텐기 15	면직물
덕흥사 양말제작소	15	-	양 말
창흥사 세유공장	14	-	세유(가는 끈)류
어 담	13	바텐기 11	면직물
김채련	8	투저식 6	견 · 면교직
공순강(순창호)	7	자카드 및 바텐기 8	견 및 작잠 교문직
김태봉	6	바텐기 6	견려사교, 견 · 마교직
이용식	6	족답기 4, 바텐기 8	면직물 외 견 및 교직
권태영	5	바텐기 6	면직물
김재윤	5	투저식 6	면직 모기장
김중한	-	역직기 3	-

[주] : 경성직유(주)는 조유업과 직포업을 겸하고 있어, 원래는 각기 따로 조사되었던 것인데, 여기서서는 둘을 합하였음. 다만 조유에 관한 것은 1911년의 것이고, 직공수는 직유의 90인, 직포의 5인을 더한 것임.

이 당시의 공장의 투자액이 극히 미미하여 주요 직물업소의 시설을 <표 18>에서 살펴보면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경성직유(주) 조차 직공수 95명은, 시설은 각종 직유기 78대로 중기업에도 못미치는 소기업에 불과하였고 그 외의 공장들은 수효만 많았지 보잘 것 없는 영세공장들이었으며, 이 표에도 오르지 못한 많은 가내 기업은 직기 1~2대에 불과하여 공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여러 생산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1915년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을 공포하면서 많은 축산동업조합과 함께 경성직물동업조합도 결성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인 직물업자들로서만 시작되었으나 곧 일본인 업자도 참가하게 되었다. 조합에서는 일본인 기사를 초빙하여 직물업 개선방안에 대한 강화회, 품평회도 열고, 총독부 기관인 경성은사수산기업장의 지원을 받아 기직(機織)기술을 보급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족담기 보급사업이었다. 족담기는 당시로서는 인력을 이용한 직기중 가장 완비된 구조를 가진 것으로, 개량직기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이었다. 따라서 구조도 복잡하고 값도 비교적 비쌌던 것인데, 조합에서는 조합경비의 일부로써 40대의 족담기를 구입하고 월부반환방법에 의하여 적지 않은 수의 족담기가 보급됐다고 하며, 다음 글에서도 그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성에 있는 기업가의 수는 40호를 헤아리며, 300대의 족담기와 10여대의 수직기를 설비하고 있고, 수직기에 의한 소규모의 부업적 경영자까지 합할 때는 70~80호의 기업자를 헤아릴 수 있다.”

세계 1차대전이 끝난 후 경기가 침체하고 면사값이 폭등하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의 직물업은 이들에게 원사를 공급해 줄 방적업이 전혀 발달하지 못하여 원료중 가장 중요한 면사를 거의 전부 일본에서 수입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직물의 제조원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사값이 불안정한 가운데 폭등하여 원사도 현금으로 사야하고, 임금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영세직물업자는 불경기를 극복하기 힘들어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불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1919년 소위 경성염직업계에서 저명한 김덕창, 최규익, 이창림 세사람 외 11명은 공장을 통합하여 자본금 50만원으로 동양염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였다. 1922년 현재 이 회사는 서울의 직물업 회사 중 경성방직 다음가는 큰 회사였다.

또한 1911년에 설립되어 초기에는 활발히 영업을 계속해 오던 경성직유가 1916년경부터 경영난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파산 직전에 처해 있어 1917년 김성에 인수하였다. 경영난의 원인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장이나 머리모양이 급속하게 바뀌면서 각종 끈종류의 수요가 줄은 데에 있어, 이제까지의 땡기, 염낭끝 등의 생산을 중지시키고 한양목, 소창, 소폭목면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을 겪고 난 1921년말 현재 서울에 있었던 조선인 직물업, 편조물업 공장수는 18개 였는데, 자본금 합계 223,418원, 취업자수 304명, 원동력 15마력이었다. 이중에는 1919년에 설립된 자본금 3만원의 조선단포제작소와 자본금 48,122원의 대창무역주식회사 직물공장, 자본금 10만원의 경성직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빼고 보면 15개 공장의 자본금이 45,296원에 불과하므로 평균하면 자본금 3천원이 되니, 이들이 얼마나 영세한 규모였는지 알 수 있다. 18개의 공정 중에는 1919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 다섯이나 있었으니, 불황으로 많이 도태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였고, 또 새로운 업자가 등장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제품을 살펴보면, 일제의 값싼 기계제 면포는 합방후 강력한 정

치적 지원을 배경으로 더욱 세차게 밀고 들어와 우리의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였으며, 면사는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기계방적사를 모두 수입해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비록 1차 대전의 호황에 힘입어 직물업자의 수도 늘고, 직기도 많이 족당기도 대체되었지만 우리의 시장을 완전히 휩쓸고 있는 일본제품과 맞서 서 싸울 수 있는 형편은 못되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세공장들은 색다른 제품을 개발하여 일본제품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많은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끈질기게 존속해 나갈 수 있었다. 다음의 글은 당시 서울지방에서 생산된느 각종 면직물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제제품의 종류를 보면 면직물이 최다수를 차지하며 견직물 및 견·면교직물이 이에 다음 같다.

면직물에 있어서는 쌍자능직(雙子綾織 : 쌍자는 지금의 쌍사로 추정된-필자), 머서화가공(silket가공) 평직, 실켓트 능직, 문직 포단지, 평직 모기장 색능 목면포단지 등이 제작된다. 또 제제품의 색깔 및 그 옷감의 조직을 살펴보면 오랜 관습인 조선인의 백의의 취미는 근래 점차 초다(焦茶), 청다(靑茶), . . . 등의 색물 및 이러한 종류의 상강양병물(霜降樣柄物 : 멜란지 제품 - 필자)로 향하려 하고 있다. 또 단조로운 평직물로부터 보통의 방적사, 가스사(gas絲), 실켓트 등을 사용한 각종 능지의 직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밖에도 한양목(漢陽木)은 기계방적사로 두텁게 짠 가나킨과 비슷한 것으로 씨실, 날실 모두 20번수의 단사를 사용한 의복지로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 동양염직주식회사에서 개발한 동양목에 밀려 수요가 점차 줄었다고 한다. 가스단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가스사로 짠 비단과 같이 광택이 나는 직물로서 1920년대에 들어서는 상류층의 의복지로서 상당히 많이 소비되었다고 한다.

이들 직물은 가나킨과 같은 많은 수입직물과는 달리 대량생산의 이점을 살릴 수 없는 것이고 수요도 그만큼 광범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직물업은 성능이 떨어지는 직기를 가지고 생존해가기 위하여 제각기 특징있는 직물을 생산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